

유럽에서의 활자인쇄 출현 · 보급과 영향

〈극동 인쇄사와의 비교연구적 소고〉

앙리 장 마르탱

소르본느 고등연구원 역사문화학 부교수

동양의 인쇄기술과 그 우위성은 유럽의 기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인쇄역사가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모리스 오맹은 《인쇄사(L'histoire de l'imprimerie)》에서 “문화적 보급이 가능치 않았던 세계의 북반부 두 지역인 한국과 라인 강변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활자인쇄의 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라고 쓰고 있다.

우리는 동양에서 사용된 과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선 한국과 중국·일본의 기술적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극동의 인쇄사에 대한 몇가지 세미나에서 우리는 세가지 관점에 주목했다.

첫째 첫눈에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은 기술적인 전달 문제다. 두번째는 인쇄과정이 발명되고 완성되어가는 환경과 분위기,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파되어가는 여건을 들 수 있다. 세번째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매우 다르게 나타난 발명의 결과를 들 수 있다. 이는 인쇄물과 그 이용에 대한 쌍방의 자세를 말한다.

이 모든 문제들은 경제와 사회영역, 특히 심리적 영역의 문제들을 드러낸다. 심리적 영역의 문제들은 특히 1959년 ‘각 민족의 문자와 심리학’에 대한 세미나 개최 이후 프랑스 역사학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세미나를 통해 터득한 것은 동서양 인쇄문화 연구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동양과 서양의 역사와 정신구조를 동시에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양에서의 인쇄 출현

15세기 유럽에서 인쇄가 출현하게 된 여건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이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의 지역적 개념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유럽은 다양한 대양에 둘러싸여 육지와 해상의 통신교류가 상대적으로 손쉬운 반도이다.

유럽에서의 표음문자적 문명 출현의 주된 주체자는 히랍과 로마였다. 로마제국이 서구 유럽을 정복하고 그 문자 및 이탈리아·스페인어·포르투갈어·불어의 원조가 되었다는 점은 익히 아는 바이다. 이후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은 로마제국을 멸망시켰으나 기독교

정신은 멸망시킬 수 없었으며, 라틴어는 서구의 종교적 언어와 문화적 언어로 남게 되었다.

12~13세기 파리는 많은 국가로부터 학생들이 몰려든 대학에 힘입어 문화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고대부터 11세기까지 문자는 단지 구술되는 연설을 기억시키는 도구로밖에 인식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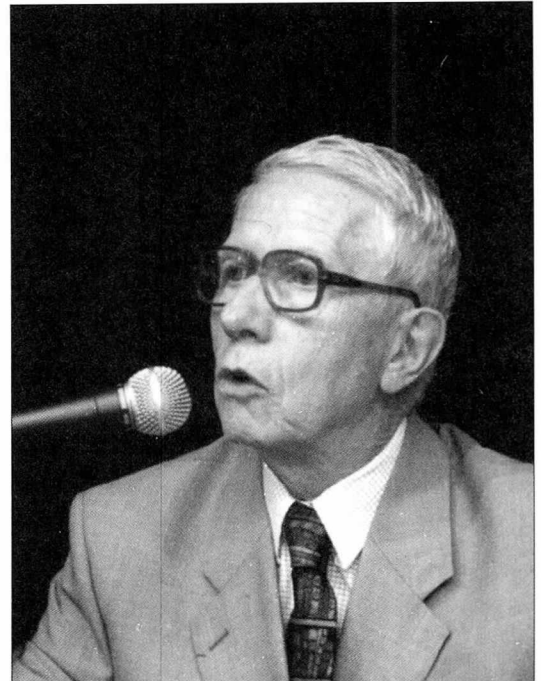
필사된 텍스트의 단어들 이 분리되지 않고 연속으로 써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것을 큰소리로 읽었다. 단어와 단어 사이가 분리된 것은 11~12세기의 문화적 소산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활자와 인쇄의 발명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단계다. 활자인쇄 발명의 기본이 되는 분리된 문자로 써어진 연설문을 구성할 수 있는 개념이 서양인들에게는 쉽게 형성되지 못했던 것이다.

14세기 백년전쟁으로 프랑스와 영국이 폐쇄될 때 지중해 상권을 장악한 부유한 이태리에서는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 게르만 민족들은 진정한 경제적·문화적 ‘봄’을 알게 되었고, 특히 이태리와 북유럽의 지역들 사이를 잇는 라인강 유역을 따라 발전했다. 광산의 개발로 풍족해지고 큰 변명과 격렬한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는 독일이 문화의 통로가 되어갔다. 학교가 증가했고, 종교·행정·상업에 필요한 엘리트들 키우기 위한 일련의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독일은 기술의 발전과 상업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미국과 비견될 만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뉘른베르크는 금속기술 분야 개혁의 큰 중심부였고 모든 종류의 금속물이 산출되었다. 당시 활자인쇄는 당대의 재정가와 상인계층과 연결되어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기술자에 의한 동판인쇄처럼 이루어졌다.

본 스트로머 교수에 의하면, 서양은 확실히 동양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동양문화는 실크로드의 귀착점의 하나인 뉘른베르크, 스트라스부르크, 마인츠와 같은 독일의 상업 및 산업도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 그의 관점은 모든 기술력 개선은 한걸음 한걸음 단계적으로 발전된다는 사실이다. 각 단계는 특정한 목적과 관련되고 명확한 산물을 얻도록 조준되어 있으며, 뉘른베르크 지역의 인감,

“르네상스 시대 독일은 기술과 상업적인 면에서 미국과 비견될 만한 역할을 하였다. 뉘른베르크는 금속기술분야의 중심부였고 모든 금속물이 산출됐다. 유럽의 활자인쇄 출현으로 문체가 발전, ‘규격화’ 되기에 이르렀고 서양인의 사고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앙리 장 마르탱 교수

금속 및 은속제품 각인기 등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양사회에 있어서 문자 및 활자인쇄술의 개선은 금속한 발전상에 있는 국가들의 요구에 기인한다. 또 종이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적용했는데 이는 당시 아랍의 운하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목판인쇄와 활자에 의한 인쇄문체는 더욱 복잡하다. 면죄부나 달력 등과 같은 초기 인쇄물 가운데 오늘날에는 사라진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일찍이 인쇄술의 발명가들은 도서를 복제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을 생각해 보자. 인쇄의 발명자와 그들을 후원하는 재정가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서양에서의 도서는 루시앙 페브르가 강조한 것처럼 하나의 ‘상품’이 되어갔다. 활자인쇄는 1450년~1480년 사이에 전유럽으로 확산되었고 1480~1510년 사이에 그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는 도서의 출판·인쇄의 중심지가 되어갔다.

서양인쇄 출현의 몇가지 결과

유럽의 활자인쇄 출현의 결과로는 우선 서체의 발전을 꼽을 수 있다. 필사본의 시대에는 복제된 본문내의 문자 형태로 국가나 종교를 구분할 수 있었다. 당시 통용된 문자는 고딕체로서 인문주의 학자들에 의해 창

조된 로마체에 의해 정복됐다. 고딕체와 로마체를 통일하는 이른바 ‘표준화’를 실현코자 했는데, 라틴문서에 사용된 로마체는 서부 유럽의 문헌과 언어에서 고딕체의 자리를 빼앗았다.

또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필사본의 ‘규격화’가 요구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도서를 쉽게 참고하고 독서하고자 했다. 이들 다양한 규격화는 《성토마스로부터 데카르트까지의 근세 도서의 출현》이라는 나의 저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서양인의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가와 문헌의 관계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전제왕권이 강화되던 시기 국왕은 수많은 방언이 사용되는 전국의 언어발음을 통일시키고 불어의 용어들을 명확히 하는 데 인쇄가 사용되기를 원했다. 그들은 공식문서와 법적 판결문을 더 이상 라틴어가 아니라 불어로 작성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도서의 출판조건과 이들에 대한 검열제도를 만들었으며, 인쇄가와 서적상을 규제하기 위한 많은 규정들을 제정했다.

그후 1630~1640년 사이 루이13세의 재상인 리엘리의 추기경은 불어의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프랑스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오늘날의 국립인쇄소인 왕립인쇄소를 설립했다. 이는 한국이 국가인쇄소를 설립한 지 2세기가 지난 후의 일이다. ◆